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13권 제2호
Korean J of Childcare & Education
https://doi.org/10.14698/jkcce.2017.13.02.081 2017, Vol. 13, No. 2, pp. 81-96

성별 및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자기조절력*

Self-regulation According to Preschoolers' Gender and Parenting Attitude

김진경[1] 강은희[2]

Jin Kyung Kim[1] Eun Hee Kang[2]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detailed view of the self-regulation of 5-year-old children based on parental attitudes and consistency.
Methods: The research was conducted among 144 pairs of parents (288 people) of 5-year-old children residing in Seoul.
Results: The resultsare as follows. First, with regards to self-regulation based on a child'sgenderand mother's parental attitudes, sub-factors such as parental attitudes and parental interaction were found to have significant effects on self-determination. Also,parental attitudes and parental interaction were found to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sub-factors of self-monitoring, such as self-evaluation and self-determination and the sub-factors of self-regulation, such as behavioral inhibition and emotionality. Second, the percentage of parents whose parental attitude was consistent at 58.3%, which is higher than the percentage of parents whose parenting attitude was inconsistent at 41.7%. The results of self-regulation were significantly higher when parental attitudes were consistent than when they were inconsistent.
Conclusion/Implications: This research is significant in that it offered a concrete view of parental attitudes and consistency status that affect child's self-regulation.

key words parenting attitude, self-regulation, preschoolers' gender

* 본 논문은 2016년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

[1] **제1저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2] **교신저자**
명지대학교 대학원 아동학과
박사과정
(e-mail : keh7468@hanmail.net)

I. 서 론

현대사회에서는 외부의 자극에 대해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능력은 사회적으로 승인된 상황에서 바람직한 사회적 적응과 융통성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한다. 유아는 발달특성상 자신의 욕구나 행동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힘들며,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바로 성취하지 못할 때 갈등과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안문실, 2013; 이미혜, 2011). 이와 같이 사회화 과정에서 수용되는 행동을 구별하고 수용되는 범위 내에서 즉각적인 감정과 욕구를 바람직하게 조절하여 행동하는 자기조절능력(박호선, 2002)이 요구

된다. 유아의 자기조절력은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유아의 자기조절력의 발달은 유아가 최초로 접하게 되는 환경인 가정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유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최초의 사회문화적 환경요인으로서 유아의 자기조절력 발달에 지속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Bandura, 1997). 유아의 자기조절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유아자신의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지를 추론하고 유아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고 책임지도록 하는 논리적이며 일관성 있는 양육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장영숙, 2009).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부모는 자녀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발달 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적 환경이다. 유아의 인성이나 행동은 어린 시절의 부모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적 영향을 받으며, 행동이나 감정, 사고를 결정하는 자아의 형성도 부모에 대한 동일시, 가정에서의 경험과 사회화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에 유아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바에 따라 유아가 어떻게 행동하고 사고하도록 양육되어 왔는가 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가정문화를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한다. 유아는 부모로부터 외부세계에 대한 지식을 얻고 사회화의 기초를 형성하며 여러 가지 습관을 획득하게 된다(박미영, 2005). 부모가 자녀를 어떠한 양육태도로 양육하였는가의 여부가 부모와 자녀관계의 질을 결정하고 자녀의 인지적, 정서적, 성격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Becker, 1964; Rohner, 1991). 특히 가정에서 부모는 유아가 접하는 최초의 교사이며 부모의 양육태도 방법, 인격형성 등은 유아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김진경, 김혜라, 2012). 가정환경보다 나은 학교는 없고, 부모보다 더 큰 영향력을 지닌 교사는 없다는 지적처럼 가정의 환경은 유아의 행동변화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lavell(1979)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발달은 부모의 양육행동과 같은 환경 요인, 상징적 표상능력과 자아에 대한 개념, 유아의 인지변인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여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서의 부모의 양육행동을 강조하였다.

현대사회는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양육문제 공유와 가사분담 등으로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늘었으며 양육참여의 단순한 양적 증가뿐 아니라 자녀의 다양한 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양육태도란 부모 또는 제2의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나타나는 태도 및 행동(Becker, 1964)을 말하며 양육태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부모가 일관된 양육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부부가 함께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가정 내에서 부모들은 대부분 의견일치를 위해 조율해 나가나 그렇지 않은 경우 불일치 상황에서 논쟁을 하거나 분노표현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가정 내에서 표현하게 되며 자녀의 양육에 있어 부모의 정서가 전달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유아들은 부모의 의견불일치와 갈등이 자신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되면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정서적 혼란과 문제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Tschann, Flores, Pasch, & Marin, 1999). 또한 자녀는 부모가 자신을 양육함에 이어 부모의 논쟁을 자주 목격하며 성장하면 사회상황에서 행동을 억제하려는 성향이 강해지는데 이는 행동억제와 관련된 (Schwartz, Snidman, & Kagan, 1999)연구에서처럼 아동기 초기에 행동억제성향이 높은 경우 청소년기에 사회불안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부부간의 양육태도 일치와 관련된 결과로 한지선(2008)은 부모 간 양육태도가 일치할 때 아동의

자아개념이 긍정적으로 발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자녀의 바람직한 자아개념 형성을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일관된 양육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다. 배문주(2005)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일치하는 집단의 유아가 불일치하는 집단의 유아보다 정서지능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자기 정서의 인식 및 표현능력이 높고, 교사와의 관계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양육태도 일치정도가 유아의 전체 사회·정서적 발달과 하위요인인 유아의 안정감, 성취동기, 호기심, 유아의 내적통제, 또래와의 상호작용, 안정감과 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밝혔다(김미진, 2009). 이와 같이 부모 간의 양육태도 조화와 일치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어떤 유형으로 일치하는 것이 유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체적 모색이 요구된다.

한편, 유아기의 자기조절력은 영아기를 지난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연령의 증가 또는 인지 발달과 더불어 발달할 뿐만 아니라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강기숙, 이경님, 2001; Kendall & Wilcox, 1979). 자녀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결과가 충분치 않으나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아버지가 여아보다 남아와의 관계에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라는 연구(Schoppe-Sullivan et al., 2006)와 아버지는 여아보다 남아에게 더 엄격하게 대한다는 연구(Farver & Wimbarti, 1995)가 있다. 자녀의 성별이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면 자녀의 성별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도 다를 수 있는데 여아의 아버지와 달리 남아의 아버지는 원부모와의 애착경험 변인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가 어렸을 때 받았던 아버지 역할을 모방하여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므로(Jain, Belsky, & Crnic, 1996), 아들에 대한 아버지 역할보다 딸에 대한 아버지 역할을 모델링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버지교육에 대한 요구도 조사결과(홍길회, 황정해, 2006)에 따르면 딸을 가진 아버지들의 교육요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성 자녀의 양육에 어려움을 더 느끼는 것을 시사한다. 어머니의 경우 아들과의 관계에서 보다는 딸과의 관계에서 더 친밀하고 상호 반응적인 관계가 더 쉽게 이루어졌고(Kochanska, 1977), 남아를 둔 어머니는 여아를 둔 어머니에 비해 자녀에게 더 권력 행사적이고(Kochanska, 1977), 신체적 처벌을 더 많이 사용했다(Maccoby & Jacklin, 1974)고 한다. 문채덕(2010)은 부모가 여아에게는 보다 자율적인 양육행동을 남아에게는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보였다고 밝혔고, 이영미(2009)는 어머니의 강압적이고 적대적인 언행은 남아의 정서조절 및 행동억제의 발달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어머니의 온정적, 애정적 언행의 결여는 여아의 자기조절행동 발달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부모는 자신과 다른 성을 가진 자녀에게 더 허용적, 긍정적, 수용적, 합리적 양육태도를 보이고(Baumrind, 1967), 어머니는 남아에게 더 반응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Biringedn et al., 1999).

한편, 유아초기부터 점진적으로 형성되어 생애 전반에 걸쳐 다양한 결과를 보이게 되는 자기조절력은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지각하고 행동을 적절히 조절하며 외부의 자극에 대한 감정이나 생각을 내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한다(김혜원, 2007). 유아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계획하고 평가하

는 등 자기조절이 필요하며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에서 필수요소인 자기조절력은 유아기 때부터 형성되어지며, 유아기의 자기조절력은 단기적 발달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발달의 기초가 되며 성인이 되었을 때의 성공을 예측하는 능력으로 불리고 있다. 이러한 자기조절력은 어떤 과업을 수행할 때 혼자 할 경우는 일부만 성취하고 양육자와 함께 하면 성공적으로 완전하게 습득할 수 있게 되므로 유아의 자기조절력은 양육자에 의해 촉진된다(Bandura, 1977). 자신의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유아는 다른 사람의 욕구나 감정을 고려하며 개인이 속한 사회나 문화의 표준에 일치되는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여 표현하며 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된다(Bukowski & Hoza, 1994; Goleman, 1995). 특히 자기 통제력이 충동적인 단계에서 의미론적 단계로 발달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만 5, 6세 유아들은 상황에 알맞은 규칙을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실행할 수 있다. 유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충동을 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능력은 5세나 6세가 되면 발달한다고 한 연구(Gross & Harris, 1988)와 자기조절력의 구성요인인 유아의 순응행동은 4～6세 별다른 발달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유혹저항행동은 3세～4세경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6세경에 나타나는 유혹억제방략의 발달과 함께 현저한 유혹저항 행동을 보인다는 연구(Cole & Cole, 1989; Schaffer, 1999)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자기조절력의 차이를 안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만 5세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조절능력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애정적 태도만이 유의미한 예측력을 보인다는 연구(허정경, 2007), 수용적인 양육태도와 심리적인 통제만 영향을 보인다는 연구(이정윤, 최수미, 2011), 긍정적 태도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장영숙, 2009), 민주적, 긍정적 통제적 태도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의존성을 조장하는 양육태도만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최미숙, 공진희, 박은영, 2012), 민주적 양육태도와 비민주적 양육태도가 모두 자기조절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임선아, 2014)등 양육태도가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양육태도별로 자기조절력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일관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성별과 부모 양육태도, 그리고 부모의 양육태도 일치 여부에 따른 자기조절력을 구체적으로 조망하여, 유아기 자녀의 건강한 발달 도모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는 유아의 성차에 따른 바람직한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제공과 유아의 자기조절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성별과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자기조절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1-1. 성별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자기조절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1-2. 성별과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자기조절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부모의 양육태도 일치 여부에 따른 유아의 자기조절력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서울 소재의 만 5세 유아 144명으로, 그들의 부모가 평정하는 방법으로 연구가 실시되었다. 질문지는 총 203쌍(406부)을 배포하여 319부가 회수되었으며, 부모님 중 한쪽만 응답한 경우나 결측값이 많은 경우를 제외한 144쌍(288부)을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다음은 유아와 부모의 일반적 사항은 <표 1>와 같다.

〈표 1〉 만5세 유아 및 부모의 일반적 사항 (*N* = 144)

구 분	*n*	%
유아 성별		
남	78	54.2
여	66	45.8
아버지 연령		
20대	5	3.5
30대	71	49.6
40대 이상	68	46.9
어머니 연령		
20대	4	2.6
30대	96	66.7
40대 이상	44	30.7
아버지 교육수준		
고졸	38	26.2
전문대졸	23	15.9
대졸	66	46.2
대학원졸	17	11.7
어머니 교육수준		
고졸	35	24.3
전문대졸	46	31.9
대졸	56	38.9
대학원졸	7	4.9

2. 연구도구

1) 부모 양육태도

본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는 Schaefer(1959)의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MBRI)를 이원영(1983)이 번안한 것으로 이를 수정. 보완한 이미경(2012)의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MBRI 검사 도구는 애정적, 거부적, 자율적, 통제적 양육태도로 제한하여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평정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Cronbach’s a 값을 산출한 결과 아버지 양육태도는 애정적 태도 .83, 거부적 태도 .74, 자율적 태도 .68, 통제적 태도 .69 이고, 어머니 양육태도는 애정적 태도 .80, 거부적 태도 .75, 자율적 태도 .60, 통제적 태도 .68 로 나타났다. 각 변인별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애정적, 거부적, 자율적, 통제적 태도 점수를 구한 후 애정적 태도와 거부적 태도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고 자율적 태도와 통제적 태도도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므로 애정적 태도 점수와 거부적 태도 점수를 비교하여 높은 점수를 나타내는 태도에 따라 애정적 또는 거부적 태도로 분류하고, 자율적 태도 점수와 통제적 태도 점수를 비교하여 높은 점수를 나타내는 태도에 따라 자율적 태도 또는 통제적 태도로 분류하였다. 선행연구의 분류절차를 참고하여(이미경, 2012; 최미향, 2002; 한지선, 2008)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자율적 양육태도, 애정적-통제적 양육태도, 거부적-자율적 양육태도, 거부적-통제적 양육태도로 분류하였다.

2)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유아의 자기조절력 측정도구는 이정란과 양옥승(2003)이 부모를 대상으로 개발한 ‘유아의 자기조절력’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담임교사를 통해 어머니에게 연구목적과 작성방법을 설명하고 전달하였으며 유아의 전반적인 생활을 관찰한 후 작성하여 교사를 통해 회수하였다. 자기조절력의 하위영역으로 ‘자기점검’과 ‘자기통제’로 구성된다. 첫째, 자기점검의 하위 구성 요인으로는 자기평가와 자기결정이 있는데, 자기평가는 자신의 인지에 대한 인식이며, 자기결정은 적절한 전략의 선택을 의미한다. 둘째, 자기통제의 하위 구성 요인으로는 행동억제와 정서성이 있는데, 행동억제는 외적 요구나 사회적 기준에 적절한 행동을 하기 위한 억제를 의미하고, 정서성은 유아의 기질적 성향으로 낯선 상황이나 도전적인 상황에서 보는 유아의 부정적 정서를 의미한다. 정서성의 경우 문항 25번부터 31번까지 역채점 문항으로 점수 산정을 반대로 반영하였는데, 정서성 점수가 높다는 것은 불편한 상황에서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고 겉으로 적게 표출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어머니가 유아의 구체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관찰되어지는 모습을 근거로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아주 그렇다’의 5점)로 평정하도록 구성하였다.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Cronbach’s a 값을 산출한 결과, 자기평가는 .82, 자기결정은 .86, 행동억제는 .88, 정서성은 .86 으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을 위하여 SPSS 18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응답자의 양육태도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t*-검증과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유아의 성별과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자기조절력

1) 유아의 성별과 어머니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자기조절력

이 연구의 연구대상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을 분석한 결과, 아버지의 경우 거부적-자율적 양육태도와 거부적-통제적 양육태도의 사례 수는 각각 1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경우 거부적-통제적 태도는 전무하며 거부적-자율적 양육태도의 사례 수는 2로 나타났다. 이에, 거부적-자율적 양육태도와 거부적-통제적 양육태도는 극히 소수로 나타나, 이 연구의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유아의 성별과 어머니 양육태도에 따른 자기조절력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와 같고, 유아의 성별과 어머니 양육태도에 따른 자기조절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유아의 성별과 어머니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자기조절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유아의 성별에 따른 주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던 반면, 자기조절력 중 자기결정에 대한 어머니 양육태도의 주 효과가 유의미하였고($F = 1.42$, $p < .05$), 유아의 성별과 어머니 양육태도의 상호작용도 유의미하였다($F = .41$, $p < .05$). 즉, 유아의 자기조절력 중 자기결정 능력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자율적인 경우가 애정적-통제적인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남아에 비해 여아가 어머니의 애정적-자율적 양육태도를 보인 집단과 애정적-통제적 양육태도를 보인 집단 간에 자기결정 능력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한편, 자기조절력의 다른 하위요인인 자기평가, 행동억제, 정서성에서는 유아의 성, 양육태도의 주 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2〉 유아의 성별과 어머니 양육태도에 따른 자기조절력의 평균과 표준편차 ($N = 142$)

구 분			애정적-자율적 $M(SD)$	애정적-통제적 $M(SD)$
자기점검	자기평가	남아	19.79(2.62)	19.84(2.84)
		여아	19.94(3.58)	19.44(3.25)
	자기결정	남아	32.28(4.90)	31.03(6.57)
		여아	32.67(6.37)	28.94(6.96)
자기통제	행동억제	남아	34.30(5.75)	34.53(7.12)
		여아	34.21(7.56)	33.72(7.34)
	정서성	남아	25.13(5.37)	24.82(5.46)
		여아	26.45(5.54)	25.53(5.69)
자기조절력 합계		남아	111.00(13.11)	110.21(18.21)
		여아	113.27(19.51)	109.19(19.38)
계			112.04(16.27)	109.74(18.62)

<표 3> 유아의 성별과 어머니 양육태도에 따른 자기조절력

구 분		변량원	*SS*	*df*	*MS*	*F*
자기점검	자기평가	성(B)	21.49	1	21.49	2.29
		양육태도(A)	4.93	2	2.46	.26
		A X B	27.69	2	13.85	1.47
		오차	1,297.17	138	9.40	
	자기결정	성(B)	22.26	1	22.26	.57
		양육태도(A)	112.14	2	56.07	1.42*
		A X B	31.91	2	15.96	.41*
		오차	5,434.20	138	39.38	
자기통제	행동억제	성(B)	71.61	1	71.61	1.49
		양육태도(A)	115.16	2	57.58	1.20
		A X B	95.18	2	47.59	.99
		오차	6,629.05	138	48.04	
	정서성	성(B)	32.99	1	32.99	1.09
		양육태도(A)	115.83	2	57.92	1.91
		A X B	18.88	2	9.44	.31
		오차	4,185.61	138	30.33	

*$p < .05$.

2) 유아의 성별과 아버지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자기조절력

유아의 성별과 아버지 양육태도에 따른 자기조절력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4>와 같고, 유아의 성별과 아버지 양육태도에 따른 자기조절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4〉 유아의 성별과 아버지 양육태도에 따른 자기조절력의 평균과 표준편차

구 분			애정적-자율적 *M*(*SD*)	애정적-통제적 *M*(*SD*)
자기점검	자기평가	남아	19.90(2.71)	19.59(2.86)
		여아	20.75(3.05)	18.08(3.29)
	자기결정	남아	32.16(4.93)	34.05(5.24)
		여아	31.04(6.71)	27.80(7.19)
자기통제	행동억제	남아	34.62(5.62)	33.41(8.18)
		여아	36.78(5.38)	29.36(7.97)
	정서성	남아	24.50(5.18)	25.33(5.92)
		여아	27.17(5.24)	23.72(5.57)
자기조절력 합계		남아	111.18(13.31)	109.37(19.99)
		여아	118.75(15.04)	98.96(19.59)

유아의 성별 및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조절력 중 '자기점검'의 하위요인인 자기평가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의 주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아버지 양육태도의 주 효과가 유의미하였고($F = 3.09$, $p < .01$), 유아의 성별과 아버지 양육태도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미하였다($F = 5.22$, $p < .01$). 즉, 유아의 자기조절력 중 자기평가는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자율적인 경우가 애정적-통제적인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남아에 비해 여아가 애정적-자율적 집단과 애정적-통제적 집단 간 유아의 자기평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자기점검'의 하위요인인 자기결정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의 주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아버지 양육태도의 주 효과가 유의미하였고($F = 6.22$, $p < .01$), 유아의 성별과 아버지 양육태도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미하였다($F = 6.24$, $p < .01$).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따른 자기결정은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남아의 경우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자율적인 경우보다 애정적-통제적인 경우가 높았던데 반해, 여아의 경우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자율적인 경우가 애정적-통제적인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기조절력의 '자기통제'의 하위요인인 행동억제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의 주 효과 유의미하지 않았고, 아버지 양육태도의 주 효과가 유의미하였고($F = 5.01$, $p < .01$), 유아의 성

〈표 5〉 유아의 성별과 아버지 양육태도에 따른 자기조절력

구분		변량원	*SS*	*df*	*MS*	*F*
자기점검	자기평가	성(B)	3.60	1	3.60	.41
		양육태도(A)	81.41	1	27.14	3.09**
		A X B	45.74	1	45.74	5.22**
		오차	1,210.36	138	8.77	
	자기결정	성(B)	14.87	1	14.87	.43
		양육태도(A)	643.83	1	214.61	6.22**
		A X B	215.40	1	215.40	6.24**
		오차	4,761.58	138	34.50	
자기통제	행동억제	성(B)	29.35	1	29.35	.68
		양육태도(A)	646.72	1	215.57	5.01**
		A X B	315.23	1	315.23	7.33**
		오차	5,937.03	138	43.02	
	정서성	성(B)	9.24	1	9.24	.32
		양육태도(A)	149.61	1	49.87	1.71
		A X B	150.69	1	150.69	5.15**
		오차	4,037.32	138	29.26	

**$p < .01$.

별과 아버지 양육태도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미하였다($F = 7.33$, $p < .01$). 즉, 유아의 행동억제는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자율적인 경우가 애정적-통제적인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남아에 비해 여아가 애정적-자율적 양육태도 집단과 애정적-통제적 양육태도 집단 간 유아의 행동억제 능력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자기통제'의 하위요인인 정서성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유아의 성별과 아버지 양육태도의 주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였다($F = 5.15$, $p < .01$). 남아에 비해 여아가 애정적-자율적 집단과 애정적-통제적 집단 간 유아의 정서성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2. 부모의 양육태도 일치 여부에 따른 유아의 자기조절력

부모의 양육태도 일치 여부에 따라 일치하는 집단과 불일치하는 집단의 자기조절력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양육태도 일치여부에 따른 자기조절력 전체의 경우 일치집단과 불일치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 = 2.59$, $p < .01$). 자기조절력의 '자기점검'의 하위요인인 자기평가를 살펴보면, 일치하는 경우와 불일치하는 경우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자기결정의 경우 일치하는 경우가 불일치 경우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t = 2.84$, $p < .01$). 또한 자기조절력의 '자기통제'의 하위요인인 행동억제의 경우, 일치하는 경우가 불일치하는 경우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는 차이($t = 2.46$, $p < .05$)를 보였고, 정서성의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6〉 양육태도 일치여부에 따른 자기조절력 ($N = 144$)

구 분		일치여부	n	M	SD	t
자기점검	자기평가	일 치	84	19.89	2.97	.70
		불일치	60	19.53	3.17	
	자기결정	일 치	84	32.82	5.89	2.84**
		불일치	60	29.90	6.38	
자기통제	행동억제	일 치	84	35.23	6.68	2.46*
		불일치	60	32.40	6.96	
	정서성	일 치	84	25.86	5.54	1.55
		불일치	60	24.42	5.45	
자기조절력 전체		일 치	84	113.80	16.57	2.59**
		불일치	60	106.25	18.11	

*$p < .05$, **$p < .01$.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자기조절력을 구체적으로 조망하여, 유아기 자녀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성별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자기조절력을 살펴본 결과, '자기점검'의 하위요인인 자기결정에서 양육태도의 주 효과와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자율적인 경우에 유아의 자기결정 능력은 높았으며, 남아보다 여아가 더 민감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자율적-애정적일수록 유아의 자기조절력이 높으며,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거부적일수록 유아의 자기조절력이 낮다는 선행연구들(이은주, 2004; 홍애경, 2000)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오도희(2012)의 연구에서는 통제적-자율적 양육태도는 애정적-거부적 양육태도에 비해 인지조절에 더 큰 관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머니가 명령과 지시를 많이 하는 간섭이 많은 통제적 태도와 스스로 해결하도록 의사결정 기회를 많이 주는 자율적 태도는 인지조절력에 영향을 주는 양육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성별과 어머니 양육태도의 상호작용 효과는 자기조절력 하위요인 중 자기결정에 있어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남아에 비해 여아의 경우 애정적-자율적 양육태도 집단과 애정적-통제적 양육태도 집단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유아기 여아가 남아보다 자기결정 및 자기평가를 포함하는 자기점검 능력이 높다는 연구(이정란, 양옥승, 2003)와 맥을 같이 하며, 자기조절력 발달에 있어서 여아가 남아보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더 민감함을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유아의 성별과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따른 자기조절력을 살펴본 결과, '자기점검'의 하위요인인 자기평가와 자기결정, '자기통제'의 하위요인인 행동억제에서 양육태도의 주 효과와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자기통제'의 하위요인인 정서성에서는 상호작용 효과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자기조절력 하위요인 별로 나온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기점검'의 하위요인 중 자기평가는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자율적인 경우 유아의 자기평가 능력이 높았으며, 남아보다 여아가 더 민감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는 아버지가 온화하고 수용적인 양육태도일 경우 유아 스스로 자신이 아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평가하는 능력이 높은 것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어떠한 행위의 조절을 위하여 유아가 자신과 타인의 행동, 사고, 감정을 모니터하고 평가하는 능력이 갖춰져야 하기에 자기조절은 기본적으로 자기평가를 기반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평가 능력은 양육태도의 질적인 차이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긍정적이며 민주적이고 온정적인 양육 환경 속에서 독립심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부모의 유아일수록 자신의 행동과 사고, 감정을 인식, 평가하고 다루는 능력인 자기조절력이 높다는 연구들(이정란, 2003; 장영숙, 2009)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자기점검'의 하위요인 중 자기결정은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애정적-통제적 양육태도 집단인 경우 남아의 자기결정 능력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여아는 애정적-자율적인 경우 자기결정 능력이 높게 나타나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따른 자기결정은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는 아버지가 애정적-통제적인 양육태도의 경우 영향력 행사 및 권력을 이용하는 모습을 경험하

고 모델링하면서 남아는 아버지와 동일시하는 영향을 받으며 자기 주도적 결정에 따라 상황에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통제적 가정에서 자란 남아의 경우 친사회적, 협조적이며 통제가 적은 경우 과잉행동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박광균, 2000)와 유사하다. 한편, 여아의 경우, 아버지가 애정적-자율적인 경우 갈등을 해소하는 대처능력이 높고 대인 간 조화를 더 많이 이룬다는 결과(Miller, Danager, & Forbes, 1986)와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자율적일수록 여아의 자기결정이 높다는 연구결과(김수정, 2009)와 일치한다.

다음으로 '자기통제'의 하위요인인 행동억제는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자율적인 경우 유아의 행동억제 능력이 높았으며, 남아보다 여아가 더 민감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자율적인 경우 내면화된 규칙을 엄격히 지키기 위해 부정적 정서를 억제함으로써 관련된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부모의 양육방식이 애정적 · 성취적 · 자율적 일 때 유아가 문제행동 발생정도가 낮은 반면, 거부적 · 통제적 양육을 하는 부모의 유아들은 문제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이종욱, 최한희, 박병희, 2012)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자기통제'의 하위요인인 정서성은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애정적-통제적 양육태도 집단인 경우 남아의 정서성이 높았으며, 여아는 애정적-자율적인 경우 정서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남아의 경우 여아보다 동적인 활동이나 공격적 행동 표출 빈도가 잦으므로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태도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것이 남아의 정서성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겠다. 부모가 적절한 정도로 통제하고 유아의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경우 유아는 자신의 욕구에 덜 몰두하고 타인에게 반응적일 수 있었다는 연구(임연진, 2002)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반면, 여아의 경우, 아버지가 애정적-자율적인 양육태도일 때, 정서성이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는데, 아버지의 애정적, 자율적 양육태도가 유아의 정서적 지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신명숙, 2003; Kopp, 1989)와 맥을 같이 한다.

둘째, 이 연구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양육태도의 일치에 따라 애정적-자율적 양육태도와 애정적-통제적 양육태도로 나타났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불일치하는 양육태도를 보이는 부모들도 상당수임을 알 수 있었다. 부모의 양육태도 일치 여부에 따른 만5세 유아의 자기조절력을 분석한 결과 일치하는 경우와 불일치하는 경우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기조절력의 하위범주를 살펴보면 자기결정과 행동억제에서 일치하는 경우와 불일치하는 경우 간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자기평가와 정서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 강은주(2004)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으로 일치도가 높을수록 유아의 감정지능의 한 영역인 자기조절 능력이 우수하다고 하였다. 또한 애정적-자율적 양육태도 집단 아버지의 유아가 감성지능이 높았고, 하위요인 중에 감정조절 및 충동억제 부분에서도 높은 점수를 보였다는 선행연구(조부월, 2007)와 일치한다. 즉, 부모의 양육태도 차이는 자녀로 하여금 양육태도에 대한 혼란과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정서적 불안감(서경원, 유제민, 최신혜, 2007)과 우울을 가중시켜 공격성과 같은 문제행동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이응택, 이은경, 2012). 이 연구의 결과는 부모 간 양육태도의 일치여부에 따른 자녀의 제 발달에 관한 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형으로 일치하는 집단보다 긍정형으로 일치하는 집단에서 아동의 행동발달 점수가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하수경, 김원중, 2011)와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이 비지지적으로 일치하는 집단보다 지지적으로 일치하는 집단에서 아동의 정서적 자기조절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한 결과(김지연, 남은영, 2011)와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가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모순이 양육실제에 있어서 부모간의 불일치라고 하면서, 부모의 행동이 불일치하면 할수록 유아는 그만큼 더 갈등과 좌절, 욕구불만, 사회적 부적응으로 고통 받기 쉽다(배문주, 2005). 이에 본 연구를 통해 부모의 양육태도 일치가 유아 발달 중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모 각각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성별에 따라 자녀의 자기조절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규명함으로써, 자녀의 성별에 따른 동성, 이성 부모의 역할이 다른 역동적 역할을 함을 밝혔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는 연구 대상 표집을 서울 일정지역 범위에서 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표집대상의 지역을 보다 광범위하게 선정하여 일반화를 돕는 후속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참고문헌

강기숙, 이경님 (2001).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려성이 유아의 자기통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2**(4), 115-132.

강은주 (2004).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미진 (2009). 부모의 양육태도 및 청소년의 기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수정 (2009). 유아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유아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경운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지연, 남은영 (2011).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 **한국아동학회지, 32**(5), 13-26.

김진경, 김혜라 (2012). 아동의 발달특성과 정서성 및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8**(3), 53-67.

김혜원 (2007). 어머니의 정서조절에 따른 만5세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채덕 (2010). 어머니 양육태도와 유아 리더쉽과의 관계.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박광균 (2000). 아버지의 자녀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미영 (2005).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아존중감 및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호선 (2002).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유아의 자기조절행동 발달간의 관계.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배문주 (2005). 부모의 양육태도 및 양육태도 일치에 따른 유아의 정서지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경원, 유제민, 최신혜 (2007). 부모 간 양육불일치가 고등학생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중재효과와 행동억제체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19**(2), 255-272.

신명숙 (2003). 어머니의 통제유형에 다른 유아의 친사회적행동 및 자기 통제력의 차이. 남서울대학교 디지털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문실 (2013).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과 교사-영아 상호작용 행동과의 관계. **열린부모교육연구, 5**(1), 55-72.

오도희 (2012). 어머니의 양육태도, 자기조절력, 대인문제해결력의 관계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미경 (2012). 부모 간 양육태도 일치도와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영미 (2009). 성별에 따라 대인관계 질에 미치는 부, 모의 양육태도와 애착 비교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원영 (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은주 (2004).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간의 관계.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응택 이은경 (201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가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20**(1), 55-70.

이미혜 (2011). 어머니-자녀 애착 및 어머니의 자아탄력성과 유아의 적응과의 관계. **열린부모교육연구, 3**(1), 65-80.

이정란 (2003). 유아의 자기조절 구성 요인 및 관련 변인에 대한 구조 분석.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정란, 양옥승 (2003). 유아의 자기조절 구성 요인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3**(2), 69-91.

이정윤, 최수미 (2011).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초기 청소년의 문제행동: 자기조절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2**(2), 635-650.

이종욱, 최한희, 박병기 (2012). 부모양육방식과 자녀발달특성의 관계에 대한 메타 분석. **아동교육, 21**(4), 275-296.

임선아 (2014). 부모의 민주적, 비민주적 양육태도가 초등학교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 학교적응력 및 학업성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초등교육연구, 27**(2), 73-93.

임연진 (2002).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또래유능성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1), 1-12.

장영숙 (2009).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유아의 기질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간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4**(3), 207-225.

조부월 (2007).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 및 일치 정도와 유아의 감성지능과의 관계연구. **유아교육연구, 27**(4), 105-134.

최미숙, 공진희, 박은영 (2012).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정서지능 및 문제행동의 관계. **열린부모교육연구, 4**(2), 33-52.

최미향 (2002). 부모의 양육태도 및 부모 간 양육태도 일치정도에 따른 유아의 자기 효능감과의 관계.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하수경, 김원중 (2011). 아동의 기질 및 부모 간 양육태도 일치도와 아동행동발달과의 관계. **상담학연구, 12**(1), 204-218.

한지선 (2008). 부모 간 양육태도의 일치에 따른 아동의 자아개념 차이.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허정경 (2007). 아동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자기조절능력 연구. **아시아아동복지연구, 5**(4), 39-57.

홍길회, 황정해 (2006). 자녀양육 스트레스 및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아동학회지, 27**(3), 301-317.

홍애경 (2000).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및 정서지능과의 관계. 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Baumrind, D. (1967). Child cure practices anteceding three patterns of preschool behavior.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75*(1), 43-88.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d.* NY: Freeman.

Becker, W. C. (1964). Consequence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In M. L. Hoffman & L. W. Hoffman (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pp. 169-208). NY: Russell Sage Foundation.

Biringedn, Z., Emde, R. N., Brown, D., Lowe, L., Myers, S., & Nelson, D. (1999). Emotional availability and emotion communication in naturalistic mother-infant, interaction: Evidence for gender relstions.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14*(4), 463-478.

Bukowski, W. M., Hoza, B., & Boivin, M. (1993). Popularity, friendship, and emotional adjustment during early adolescence.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1993*(60), 23-37.

Cole, M., & Cole, S. (1989). *The development of children*, NY: W. H. Freeman.

Farver, A. M., & Wimbarti, S. (1995). Patemal participation in toddlers' pretend play. *Social Development, 4*(1), 17-31.

Flavell, J. H. (1979). Metacoginitive and congitive monitoring: A new area of cognitive-developmental

inquiry. *American Psychologist, 34*(10), 906-911.

Goleman, D. (1995). *Working with emotional intelligence*. NY: Bantam Books.

Gross, D., & Harris, P. L. (1988). Understanding false about emo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1*(4), 457-488.

Jain, A., Belsky, J., & Crnic, K. (1996). Beyond fathering behaviors: Types of dad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4), 431-442.

Kendall, P. C., & Wilcox, L. E. (1979). Self-control in children: Development of rating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6), 1020-1029.

Kochanska, G. (1977). Mutually responsive orientation between mothers and their young children: Implications for early socialization. *Child Development, 68*(1), 94-112.

Kopp, C. B. (1989). Antecedents of self-regulation: A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2), 199-214.

Maccoby, E. E., & Jacklin, C. N. (1974). *The psychology of sex differences*. Redwoo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Miller, P. M., Danaher, D. L., & forbes, D. (1986). Sex-related strategies for coping with interpersonal conflict in children aged five and seven. *Developmental Psychology, 22*(4), 543-548.

Rohner, R. P. (1991). The warmth dimension: *Foundation of parental acceptance-rejaction theory.* NY: Sage Publications.

Schaefer, E. S. (1959). Development of a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95*(1), 48-56.

Schaffer, D. R. (1999). *Developmental Psychology: Childhood and Adolescence* (5th ed). Pacific Grove, CA: Books/cole.

Schoppe-Sullivan, S. J., Brown, G. L., Cannon, E. A., Mangelsdorf, S. C., & Sokolowski, M. S. (2006). Maternal gatekeeping, coparenting quality, and fathering behavior in families withinfant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3), 389-398.

Schwartz, C. E., Snidman, N., & Kagan, J. (1999). Adolescent social anxiety as an outcome of inhibited temperament in childhood.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8*(8), 1008-1015.

Tschann, J. M., Flores, E., Pasch, I. A., & Marin, B. V. (1999). Assessing interparental conflict: Reports of parents and adolescents in European American and Mexican American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269-283.

논 문 투 고 : 17.02.15
수정원고접수 : 17.04.05
최종게재결정 : 17.04.14